

URI 표준화포럼

서삼영 | URI 표준화포럼 의장
한국전산원 원장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사실 표준(de facto standard)' 이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점차 주도하는 상황에서 TTA는 국제적인 첨단기술 및 표준화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전략포럼들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TTA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31개 전략포럼의 활동을 매호 소개함으로써 국내IT표준화포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TTA·편집자주)

Uniform Resource Identifier Forum

1. 배경

1969년 아르파넷을 시작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IT 기술의 혁신, 정보통신 기반구축 확산, 유무선 네트워크의 초고속화 등으로 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콘텐츠의 멀티미디어화, 인터넷의 상업화 및 보급화 등으로 현재 우리의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인터넷의 기술 발달과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사회체계의 인터넷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라는 무형자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인터넷정보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다수의 식별체계가 나타났으며, 표준화되지 않은 식별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유통 등은 디지털 경제생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및 식별체계를 의미하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는 문서, 이미지, 음악파일, 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 자원 접근에 있어 유일성과 공용성을 부여하여 식별 및 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검색,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식별체계인 URI는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기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등은 전략적으로 범국가적 차원 연구 및 민간기구를 통해 관련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다.

ITU의 유무선 인터넷 지수 평가¹⁾에서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당당하게 세계 7위를 차지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전자상거래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인터넷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 식별체계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시급하다.

이에 2001년 7월 산·학·연이 공동으로 URI 표준화포럼을 설립하여 URI 관련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동 주도, 국내 표준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소개 및 주요 실적

■ URI 표준화포럼 소개

URI 표준화포럼은 URI 관련 국내의 표준화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표준 및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 개발,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 및 식별체계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럼은 표준화 문서 작성, 사실표준 개발, 세미나·워크숍 개최를 통한 관련 기술의 교육 및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RI 표준화포럼은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관련 회원사나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 및 예산승인, 의장단 선출, 운영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는 표준안 심의 및 포럼표준 제정 등을 담당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기술·표준화 연구 및 표준안 도출 등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2개가 있으며, 해당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 URL/ENUM 분과위원회 : WINC, ENUM, 화상이미지 등
- URN 분과위원회 : DOI, OpenURL, URN 등

포럼의 주요 임원현황은 의장에 서삼영 한국전산원장, 감사에 임기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장, 운영위원장에 이흥규 KAIST 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URL/ENUM 분과위원장은 강지훈 충남대 교수, URN 분과위원장은 이창열 동의대 교수가 관련 기술 및 표준화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포럼회원은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뉘며, 포럼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명시된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개인회원의 경우 지난 2월에 개최된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연회비를 무료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현재 7개 기관회원, 107명의 개인회원이 가입하였으며, URI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회원가입수가 증가하고 있다.

1) "Internet For a Mobile Generation" : ITU가 사상 최초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사용정도, 시장구조 등 3개 분야에 걸쳐 26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정도와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 조직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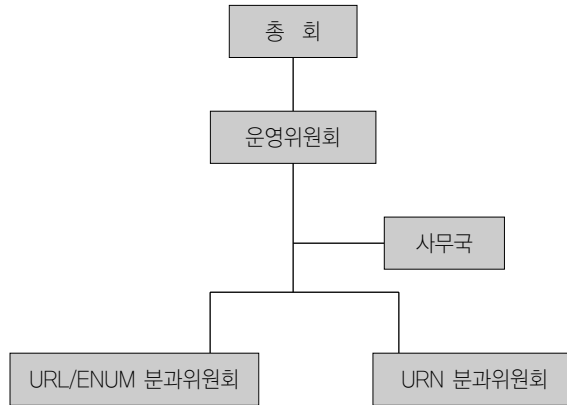


그림 : URI 표준화포럼 조직도

■ 주요 실적

○ 위원회 운영실적

URI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 추적보고서, 표준안 도출 등의 활동을 하였다. 격월에 1회 빈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정보 공유와 표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실적

- 2001년도
 -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7. 25) : 운영규정 인준, 운영위원 선출 및 기술동향 발표
 - 기술 워크숍(11. 16-17) : 기술추적보고서 발표, 차기년도 사업계획 논의
- 2002년도
 - IT Forum Korea 2002(4. 23.-25) : 국내 20여 개 전략포럼 참여, 표준 동향 발표
 - URI 표준화포럼 워크숍(8. 29-30) : URI 관

련 최신 기술동향 발표 및 토의

- 차세대인터넷식별체계(NGI2) 워크숍(11. 5-6) : NGI 관련 기술 및 표준 현황 발표, 패널 토의
- KIOW URI Updates(12. 5) : 포럼 현황, URI관련 기술 발표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활동

- 국제 표준회의 참가현황(총 7건)
 - IETF : 51차(2001. 8), 52차(2001. 12), 54차(2002. 7) 회의참석 및 동향파악
 - ISO/IEC JTC 1/SC 29/WG11 회의(2001. 12) : MPEG7, MPEG21 관련 표준화 현황파악
 - 제61차 MPEG Congress 2002(2002. 7) : MPEG DII 관련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 ITU-T SG2(2002. 12) : ENUM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현황, 표준동향 파악
 - TWNIC 방문(2002. 12) : 대만의 ENUM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현황 파악

- 국제 표준회의 발표현황(총 2건)
 - ASTAP²⁾/APT(2002. 6) : WINC-Mobile Navigation System 기고 및 발표
 - IETF/JET³⁾(2002. 7) : Hangeul Domain Standardization Status 기고 및 발표

- 기술 및 표준화 동향조사 분석
 - URI 관련 기술추적보고서 작성 (총 18건)
 - URI 관련 기고서 제출 (총 11건)

- 포럼 홈페이지 운영
 - URI 표준화포럼 국/영문 홈페이지 : www.uriforum.or.kr
 - ENUM 홈페이지 : www.enum.or.kr
 - ※ 영문 홈페이지는 ITU-T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음.

구성, 운영규정 개정, 포럼 표준제정절차 수립 등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포럼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URI 관련 산업의 활성화, 국내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URI 표준화포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럼 홈페이지(<http://www.uriforum.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TTA**



3. 활동계획 및 결론

URI 표준화포럼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술 연구 및 표준안 도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직 국내에 생소한 URI 관련 기술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홈페이지 운영, 메일진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기술 및 표준화 동향파악 활동에서 더 나아가 국제표준활동의 참여 및 표준제정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재



2) ASTAP(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표준화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APT(Asia-Pacific Telecommunity)가 1998년 2월에 발족
 3) JET(Joint Engineering Team) :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NIC은 자국어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로 구성된 JET 모임을 결성/ 주로 다국어도메인 관련 기술적 사항을 발표, 논의해왔으며, 2002년 현재 한자도메인 등록정책에 관한 인터넷 초안 및 각국의 매핑 테이블을 작성 중임.